폐철도가 치유의 숲으로 재탄생

군산시, 일제강점기 철도 활용한 4개 테마 숲 조성 … '활력림 · 어울림' 올해 말 준공 예정

군산시가 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해 조성하는 철길 숲 중 2개의 이야기(테마) 숲(활력림·어울림)이 올해 말에 준공된다고 밝혔다. 철길 숲은 녹지공간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이다.

특히, 도시 바람길 숲의 주요 대상지인 군산 철길 숲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쌀 수탈에 사용되었던 군산선 폐철도를 활용하여 총 4개의 이야기(테마) 숲(활력림·여유림·추억림·어울림)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군산 철길 숲은 근대사의 아픔을 기억하고자 철길 숲 조성구간 2.6㎞의 군산선 선로를 모두 존치하여 포장을 통한 산책로로 활용한다. 이 중 일부 약 500m 구간은 과거 철길의 모습이 그대로 간직될 수 있도록 원형을 보존해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폐선된 군산선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역사 가벽과 철길과 바람길의 모습을 형상화한 시설물을 설치해 군산의 특색을 살릴 예정이다.

아울러 군산시의 상징 나무인 은행나무와 상징 꽃인 동백나무, 폐선부지 내 철도 침목 소재로 사용되었던 단풍나무, 참나무 등을 심어 군산만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시나무, 먼나무, 태산목 등의 상록성 수종도 일부 심어서 추운 겨울에도 경관을 유지하도록 숲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활력림과 어울림에 이어 2개의 숲인 추억림과 여유림도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시는 내년 하반기에는 전 구간 완공된 철길 숲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도심에 방치되어 있던 폐철도가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치유할 수 있는 숲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 '금마농협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완공식 개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한옥형 건물… 로컬푸드 직매장 · 공유 주방 · 카페 등 주민 공간 갖춰

익산시 금마면에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가 문을 열었다. 익산시는 7일 금마농협(조합장 백낙진)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완공기념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는 지난 9월 개장했으나 바쁜 영농 시기를 고려해 완공기념행사 일정을 조정했다.

이날 행사는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해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한병도 국회의원, 도·시의원, 농협 관계자, 금마농협 조합원, 주민 등이 참석했다.

금마농협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성됐다. 지난해 7월 착공해 약 1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금마 고도(古都)와 조화를 이룬 한옥형 건물로 지어졌다.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해 지역 농업인들은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고, 주민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는다. 아울러 공유 주방과 카페, 유물 전시실 등 다양한 주민 공간을 갖추고 있다. 입구에 자리 잡은 300년 된 탱자나무는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백낙진 조합장은 "금마농협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건축에 도움을 주신 익산시에 감사를 전한다"며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를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익산의 대표적인 명소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헌율 시장은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의 완공으로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창출 기회를, 주민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 기술협력 위한 MOU 체결

국립군산대 RIS에너지신사업사업단 - OCI파워 - 전북산학융합원

국립군산대학교 RIS에너지신산업사업단은 지난 6일 OCI파워㈜, 전북산학융합원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진행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재생에너지 산학연협의체 교류를 통해 추진되었으며 MOU 체결식에는 국립군산대학교 RIS에너지신산업사업단 장민석 단장, OCI파워㈜ 임성택 본부장, 전북산학융합원 조윤정 실장을 비롯한 15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이번 MOU를 통해 RIS에너지신산업 창의인재양성 커리큘럼과 전북새만금 산학융합지구의 인프라,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을 활용한 도내 기업들의 수요에 맞춘 전문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북 지역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공급 계획이다.

또한, 취·창업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산학융합 촉진을 위한 네트워킹 환경을 조성하여 산학협력 기반의 교육과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며, 공동 기술개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개 기관(기업)은 △산학 융합형 교육과정 제공을 위한 정보공유 및 재직자 참여 지원 △생생한 실무 현장으로 캠퍼스 확장을 위한 현장 견학 및 참여프로그램 등 촉진 네트워킹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정헌율 시장은 7일 국회를 찾아 상임위원, 예결위원 등을 대상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쳤다. 사진은 이춘석 의원과 면담 중인 모습이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익산시장, 국회 상임위원 · 예결위원 등 만나 예산 반영 적극 건의

익산시는 미래 성장동력인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7일 국회를 찾아 상임위원, 예결위원 등 핵심인사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쳤다.

우선 이춘석 의원에게는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착공 △석재산업지원센터 설립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에게는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구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등 주요사업의 예산 확보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신영대·윤준병·김승수 의원을 만나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석재산업지원센터 설립 등 핵심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 등을 만나 국회 심의 단계에서 주요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시는 국회 본예산이 통과하는 12월 2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활동을 이어간다.

국회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에 나서 내년도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도, 지역 정치권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 구축으로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겨울철 재난 대비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군산시, 자연 재난 대비로 시민 생명 보호 · 재산피해 최소화

군산시는 다가오는 겨울철 안전 대비를 위해 지난 6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겨울철 자연 재난 대비기간(11월 15일~2025년 3월 15일) 동안 관계 기관, 민간단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 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됐다.

간담회에는 부시장, 산업혁신과, 경로장애인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농정과, 제9585부대 1대대, 제9585부대 11해안감시기동대대,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시 협약체결 4개 건설기계업체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3년 겨울철 대응 결과 보고 △2024년 겨울철 자연 재난 대비 중점 추진사항 및 주요 제설 대책 △관계 기관의 협조 및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작년 고군산군도 일원과 군산산단 지역의 이례 없는 기록적인 폭설과 관련해 올해 해당 지역에 대한 제설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의회 , 장관상 수상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아픈 아이들을 위한 의료·돌봄 체계 구축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최 '2024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자체 우수사례로 선정,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6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익산시의회는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와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통해 아픈 아이들의 의료·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위 조례는 김순덕 의원(팔봉, 춘포, 왕궁, 금마, 여산, 낭산)이 발의한 조례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아픈 아이 의료·돌봄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익산시의회를 대표하여 상을 받은 김순덕 의원은 "아픈 아이를 둔 부모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2024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익산시는 전북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7일 부송도서관 시청각실에서 '2024년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오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한 익산을 만들기 위한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강영석 부시장과 김경진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익산경찰서 관계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과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힘쓴 8명에게 익산시장상과 시의장상, 익산경찰서장 감사장,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상이 수여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